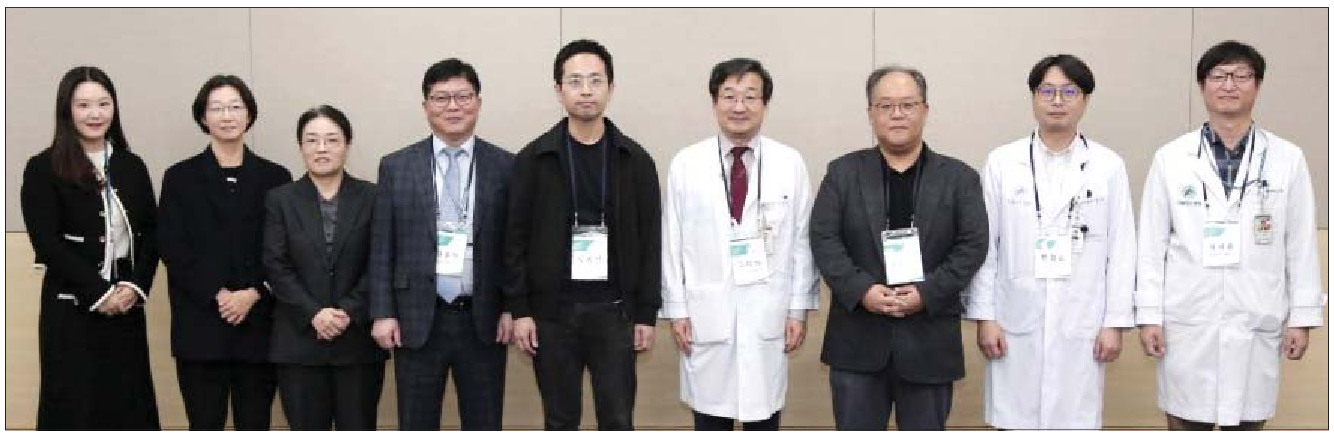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세포치료제 개발지원 서비스 본격화

병원 기반 CRDMO 플랫폼
'ONYX Biofoundry' 공개
제조, 임상 등 개발 전과정 지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왼쪽 다섯번째)는 지난 2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제11회 세포치료센터 심포지엄'에서 병원 기반 CRDMO 플랫폼 'ONYX 바이오파운더리(Biofoundry)'를 공식 공개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플랫폼을 새롭게 공개하며, 연구자들을 위한 전주기 세포치료 개발 지원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2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제11회 세포치료센터 심포지엄'에서 병원 기반 CRDMO 플랫폼 'ONYX 바이오파운더리(Biofoundry)'를 공식 공개했다.

이 날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이용석 생산본부장은 서울아산병원 세포처리시설(CPF)와 광명 GMP센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ONYX Biofoundry의 구조와 운영 전략을 소개했다. ONYX Biofoundry는 연구, 공정개발, 제조, 품질시험, 임상, 규제 대응에 이르는 세포치료제 개발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양승혜 개발본부장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규제 및 생산 지원이 가능하다"며 "서울아산병원이라는 임상 현장과 밀접한 환경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기존 상업형 GMP 및 CDMO서비스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별점으로, 연구자들은 실험실 수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적 검증과 제조 가능성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ONYX Biofoundry 생산 구역

서울아산병원 CPF는 무균제조실, 무균시험실, 이화학 실험실 등 전문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셀스택(Cellstack·세포배양용기) 96개(5만400cm²) 생산 능력과 2만4000바이알 보관 능력을 보유해 연구자들이 실제 임상 수준의 제조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병원 내부에서 임상 담당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논의하며 개발 전략을 조정할 수 있어 임상으로 이어지는 전환 과정의 시간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함께 제공되는 광명 GMP 센터는 임상 전환 후 대규모 제조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광명 GMP 센터는 셀스택 160개(8만4000cm²) 생산역량과 4만1600 바이알 보관 용량을 갖췄다.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2022)과 세포처리시설 허가(2023)를 취득한 임상용 GMP 시설이다.

양승혜 본부장은 "이 시설들을 통해 연구자는 초기 연구 단계의 소규모 제조부터 임상 단계의 대규모 제조까지 동일 플랫폼 내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연구·임상·초기 상용화 단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연구자들이 연구실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치료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운영한다. 특히 병원 기반 제조 인프라를 활용해 임상 전환의 장벽을 낮춘 점은 국내 CGT(세포·유전자치료)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종만 대표는 "ONYX Biofoundry는 연구자들이 임상 적용 가능성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병원 기반 CRDMO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아산 세포처리시설과 광명 GMP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자와 기업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인벤티지랩, '펩타이드 장기지속형 주사제' 후속 연구

베링거인겔하임 추가계약 체결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 커져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펩타이드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공동연구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인벤티지랩의 독자적인 미세유체 제형화 플랫폼 기술 IVL-드러그플루이딕(DrugFluidic)을 기반으로, 베링거인겔하임이 보유한 펩타이드 신약 후보물질을 장기지속형 주사제 형태로 개발하기 위한 양사의 공동연구가 지속된다. 이는 2024년 9월에 체결한 기존 공동연구 계약의 긍정적인 결과에 따른 후속 협력이다.

앞서 진행한 1차 공동연구에서 인벤티지랩은 자사의 미세유체 기반 제형화 기술을 통해 베링거인겔하임의 펩타이드 물질을 안정적이고 균질한 장기지속형 제형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으며, 약효 지속성과 체내 방출 제어 등 주요 기술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베링거인겔하임은 또 다른 펩타이드 물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이번 추가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이번 추가 계약을 통해 라이센스 아웃(기술이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현재 글로벌 빅파마 및 바이오텍들과 구체적인 협업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벤티지랩 김주희 대표이사는 "이번 추가 계약 건은 베링거인겔하임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세이 자체로도 인벤티지랩 기술력의 신뢰성과 사업적 잠재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라며,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단기간 내 사업화 성과를 구체화하고, 장기지속형 제형 기술의 글로벌 상용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벤티지랩은 미세유체 기반 약물전달시스템(DDS) 플랫폼 IVL-DrugFluidic, IVL-GeneFluidic, IVL-PePOFluidic™ 및 IVL-BioFluidic™을 중심으로 장기지속형 주사제와 유전자치료제, 경구형 펩타이드 제형뿐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의 SC제형의 상용화 및 기술이전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한국ESG 기준원 평가 'A등급'

2년 연속 'A'… ESG 경쟁력 입증

셀트리온이 최근 한국ESG기준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획득해 ESG 경쟁력을 입증했다.

우선 환경 분야에서는 에너지·용수·폐기물 등 주요 환경 지표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다. 친환경 포장재 전환 확대, 자원 순환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인권 영향 평가를 매년 정례화하면서 그 대상을 협력사, 지역사회 등으로 넓히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이사회 자체 평가를 도입했다. 또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2023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ESG 활동에 관한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셀트리온, 美 중심 CDMO·CMO 사업 강화

>> 1면 'K-바이오 빅2…'서 계속

셀트리온 역시 미국 의약품 시장을 중심으로 CDMO·CMO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셀트리온 CDMO 사업의 차별점은 '직접 생산'과 '직접 판매'에 중점을 둔 투 트랙 전략에 있다.

우선 셀트리온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미국 뉴저지 브랜치버그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어 현재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있다. 미국 판매를 위한 셀트리온 제품은 미국에서 현지 생산이 이뤄진다.

앞서 마련한 자회사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조직으로 재정비하며 직접판매 체계도 강화한다.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즈는 지난해 100% 자회사인 CDMO 전문기업으로 출범했지만, 전략을 변경해 글로벌 CDMO 영업과 고객사 관리를 전담하는 PM 중심의 기능형 조직으로 육성한다는 설명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은 영업 활동과 고객 관리를 하면서 셀트리온에 발주를 넣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코리아 모닝세트 이용 고객 증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전 10시 30분까지 커피와 푸드로 구성된 '모닝 세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모닝세트는 지난해 9월 스타벅스가 선보인 아침 메뉴 프로그램으로 올해 1월, 모닝 세트 푸드에 대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상 푸드를 기존 7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이 중 샌드위치 품목을 3종에서 6종으로 2배 늘리자 3분기 모닝 세트 이용 고객은 1분기 대비 약 23% 증가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모닝 세트 이용 고객에 대한 의견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보다 다채로운 스타벅스의 푸드 상품을 즐길 수 있도록 고객 수요를 기반으로 모닝 세트 푸드 구성을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인 보이그룹 '알파 드라이브 원'이 브링그린 글로벌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다.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브링그린 브랜드 앰버서더 '알파 드라이브 원' 발탁

CJ올리브영은 액티브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브링그린에서 신인 보이그룹 '알파 드라이브 원'을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알파 드라이브 원과 함께 한국과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 앱 내 '올영 매거진' 화보 공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특히 알파 드라이브 원이 브랜드 대표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등 제품력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청하 기자

조아제약 '조아 칼마디 K2' 출시

조아제약이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조아 칼마디 K2(사진)'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아 칼마디 K2는 액상, 캡슐, 정제로 구성된 이중 제형을 갖춰 하루 한 병으로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액상은 자연 유래 칼슘과 유기염 마그네슘을 함유해 위장 부담은 적고 흡수가 빠르다. 캡슐에는 흡수율이 높은 리포좀 비타민D3, 유럽 특허를 받은 고순도 비타민K2, 망간을 배합해 칼슘 흡수와 뼈 형성에 기여한다. /이청하 기자